

06 2028 대입 ·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는 까닭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습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중요한 것	3
03	유리한가 불리한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9등급제와 5등급제 **누적비율 대조표** — 1등급 4%가 10%로
-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힙니다** — 「A인데 3등급」이 나오는 까닭
- ◆ 최상위·상위권·중위권에게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 ◆ **9등급제 기준으로 셈하면 전부 틀립니다**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아홉에서 다섯으로

「5등급제가 되면 내신이 쉬워지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등급 하나에 들어가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급	9등급제 누적	5등급제 누적	5등급제 구간
1	4%	10%	상위 0~10%
2	11%	34%	11~34%
3	23%	66%	35~66%
4	40%	90%	67~90%
5	60%	100%	91~100%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2등급을 보십시오. 9등급제에서 2등급은 상위 11%까지였습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상위 34%까지입니다. 같은 「2등급」이라는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성취평가 및 석차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됩니다.

02 · 중요한 것

두 성적이 함께 적힙니다

등급 수보다 더 큰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과목마다 절대평가 성적과 상대평가 등급이 함께 적힙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무엇을 보나	내가 얼마나 아는가	남과 견줘 어디쯤인가
어떻게 적나	A · B · C · D · E	1~5등급
남에게 영향	안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 둘이 나란히 적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A인데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잘하는 반이라는 뜻입니다. 「B인데 1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어려운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이 이 둘 중 무엇을 볼지, 어떻게 섞을지는 대학마다 다를 것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편의 제목이 「단정할 수 없다」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아예 안 적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적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성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에서는 등수 경쟁이 없습니다.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대학별 반영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융합선택 과목의 범위는 교육과정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03 · 유리한가 불리한가

누구에게 어떻게

「쉬워졌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을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될 가능성
최상위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등급에 10%가 들어옵니다
상위권 언저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등급 문이 넓어집니다
중위권	2등급 안에 넓게 묶입니다

첫째 줄이 뜻밖이실 수 있습니다. 9등급제에서 상위 1%인 학생과 상위 9%인 학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갈렸습니다. 5등급제에서는 둘 다 1등급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 성적표에서 안 보입니다. 변별이 줄어드는 자리이고, 최상위권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무엇으로 가릴까

내신으로 가리기 어려워지면 다른 자료를 봅니다. 세특, 절대평가 성적, 이수 과목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후해졌으니 편해졌다」가 아니라 「등급 말고 볼 것이 늘었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고, 대학이 실제로 무엇을 볼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유불리와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절대평가 성적도 챙깁니다	함께 적힙니다
2	세특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가릴 자리가 옮겨갑니다
3	융합선택은 등급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담이 다릅니다
4	유불리 계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4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볼지 안 나온 상태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셈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절대평가로도 상대평가로도 잘 나오는 성적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보든 좋은 성적이니깐요.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우리 아이가 **5등급제 적용** 인가 (2025년 고1부터)

☐ **1등급이 10%** 인 것을 아는가

☐ **2등급이 누적 34%** 인 것을 아는가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히는 것을 아는가

☐ 성적표에서 **두 성적을 다** 보고 있는가

☐ **융합선택 과목** 에 등급이 없는 것을 아는가

☐ 9등급제 기준으로 **유불리를 셈하고** 있지 않은가

☐ 「5등급제 대비 특강」의 **근거를 물어** 보았는가

일곱째를 조심하십시오. 9등급제 기준(1등급 4%·2등급 11%)으로 셈하면 전부 틀립니다. 5등급제는 10%·34%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이 「그래서 유리한가요」에 대한 답입니다. 대학이 이 성적을 어떻게 볼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답을 자신 있게 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예상」이라면 그건 예상이지 답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5등급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나요?

한 과목 안에서의 등수 경쟁은 완화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1등급에 10%가 들어가니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만큼 다른 데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신으로 못 가리면 세특과 절대평가 성적을 더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 「총 부담이 준다」 기보다 「부담의 모양이 바뀐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등수를 다투는 부담은 줄고, 내용을 채우는 부담은 남습니다.

Q.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도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부터 하십시오.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 과목 내용을 아는 것, 그것을 글과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 — 이 셋은 9등급제에서도 5등급제에서도 똑같이 값이 있습니다.

반대로 「5등급제 전용 전략」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학 반영 방식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만든 짐작입니다.

짐작에 시간과 비용을 쓰기 전에 안 바뀌는 것부터 채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모집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1등급은 10%, 2등급은 누적 34%이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힙니다. 유불리는 대학 반영 방식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